

“카셰어링 사고 발생률 높아 보험료 차등화 필요”

일반차량의 10배 ... 회원수 늘어 뺑소니 사례 잇따라

보험연구원 보고서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의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일반 차량의 10배나 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기승도 수석연구원과 이규성 연구원은 11일 '카셰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쏘카, 그린카, 씨티카 등 카셰어링 업체의 회원수는 2012년 6만8000명에서 올해 480만명으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카셰어링의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불충분한 탓에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거나 사고를 내고서 뺑소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카셰어링 차량의 높은 사고 발생률이 문제다. 카셰어링 업체의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물배상이 149.6%로 일반 개인용 자동차의 사고 발생률(13.8%)에 견줘 10배나 높았다.

렌터카 차량의 대물배상 사고 발생률 24.2%와 비교해서도 6배나 높은 수치다.

이는 카셰어링 이용자가 사고 위험도가 높은 20대와 30대가 주로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사고 위험도가 높은 이용자의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높은 사고 발생률의 원인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이용자의 사고 위험도를



반영해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사고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카셰어링 업체가 이용자의 위험도를 보험료 계산에 반영하려면 과거 운전기록과 사고기록을 알아야 하기에 관련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보고서는 카셰어링 업체의 사고보상 사각지대도 지적했다.

현재 카셰어링 업체가 제공하는 대물 보상한도는 1억원이다. 국내에 고가의 외산차가 늘어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1억원으로 충분히 보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카셰어링 업체가 대물배상의 보상한도를 1억원 초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나 이용자가 다양한 대물배상 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Family Driving Experience With Levante

마세라티, SUV 르반떼 시승 이벤트

마세라티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르반떼의 시승 이벤트인 '패밀리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위드 르반떼'(Family Driving Experience With Levante)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10개 마세라티 전시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사전 예약을 해야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강남·송파·분당 전시장이 7일부터 13일까지, 광주 등 나머지 7개 전시장은 9일부터 15일까지다.

마세라티는 시승 및 상담 고객에게 브랜드 텀블러를, 6월 르반떼 계약 및 출고 고객에게는 그랜드 위커릴 서울 글래핑 상품권을 각각 증정한다.

르반떼는 마세라티가 100년이 넘는 브랜드 역사상 처음 선보인 SUV 모델로 작년 11월 국내에 공식 출시됐다.

최상위 모델인 '르반떼 S'는 3.0 V6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과 ZF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으며 최고출력 430마력, 최대토크 59.1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제로백이 5.2초이고 최고속도는 264km/h, 연비는 리터당 6.4km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9일 경기도 김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고성능 세단 스텔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25일까지 운영한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스텔링어 체험

김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25일까지

기아자동차는 지난 9일 경기도 김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고성능 세단 스텔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25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스텔링어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이 공간에서는 3.3 터보, 2.0 터보 등 스텔링어 2대가 전시된다. 열쇠고리 등 스텔링어 관련 액세서리 제품이 전시되는 ‘스텔링어 브랜드 컬렉션’도 운영된다.

360도 가상현실(VR)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스텔링어 4D VR’ 공간도 마련된다. 스텔링어를 직접 타고 김포에서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운전할 수 있는 시승 체험 기회도 제공된다.

기아차는 시승 사진이나 영상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스텔링어 브랜드 카드지갑 등을 경품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5천원 상당의 음료 쿠폰도 제공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수입차 중 법인차 비중 34%...역대 최저

무늬만 업무용차 규제 효과

1년새 0.9%포인트 떨어져

벤츠 ↑ 아우디·폭스바겐 ↓

올해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차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인 34%대로 떨어졌다. 작년보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관리 강화 방안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9만4397대 가운데

데 법인이 구매한 차량은 전체의 34.5%인 3만 2581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 수치인 35.4%와 비교하면 1년 사이에 0.9%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수입차 중 법인차 비율은 2010년에는 49.8%에 달했다. 신규 판매된 수입차 2대 중 1대가 법인차였던 셈이다. 이후 법인차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고, 올해 사상 최저 수준인 35%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전체 수입차 판매 추이와 비교하면 법인용 차량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올해 5월까지 수입차 전체 판매량은 9만4397

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법인차 판매량은 작년보다 1.5% 감소했다. 특히 지난 4월과 5월에는 두 달 연속 법인차 비중이 32%대에 머무르는 데 그쳤다.

업체별로는 ‘디젤게이트’ 여파에 시달리는 아우디의 법인차 판매량이 작년 4월까지 누적 3219대에서 올해 453대로 2766대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폭스바겐은 올해 4월까지 한 대로 팔리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은 1766대였다.

초고가 차량인 벤틀리 역시 작년 4월 누적 81대에서 올해는 3대로 줄었다. 크라이슬러, 포

드, 혼다, 인피니티, 랜드로버, 포르쉐 등의 법인차 판매 대수도 일제히 줄었다.

반면 올해 판매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의 법인차 판매 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03대, 1257대씩 늘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법인차 판매량은 1만 94대로 1만대를 돌파했고 BMW 판매량은 6955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수입차 중 법인차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세 당국의 업무용 차량 관리 방안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업무용 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작년 1월부터 개정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른바 ‘무늬만 업무용차’ 규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연합뉴스

제작결함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3만8000대 12일부터 순차 리콜

제작결함 5건이 확인된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3만8000대 가 리콜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3월 29일 4건, 4월 21일 1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이들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청문 절차를 거쳐 현대·기아차에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첫 사례다.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강제리콜한 5개 결함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결함 은폐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달 5일 국토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 순차적 리콜 계획을 밝혔다.

리콜 대상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I)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고고도 불량이다.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 **17억**

치평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법원 경매/공매】

토 지	근 린 시 설
▶ 남구 주월동 백운교차로 인근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토지 124평 감정가 348,000,000	▶ 서구 쌍촌동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사무실 8m도로점 토지 168평 건물 86평 감정가 493,000,000 최저가 493,000,000
▶ 남구 화장동 농막마을내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04평 감정가 42,000,000	▶ 남구 송화동 광주대 인근 토지 138평 건물 492평 감정가 1,227,000,000 최저가 1,227,000,000
▶ 나주시 죽림동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454평 감정가 287,000,000 최저가 287,000,000	▶ 북구 신안동 숙박시설 토지 357평 건물 986평 감정가 5,143,000,000 최저가 3,600,000,000
▶ 나주 남평읍 교촌리 도시지역 생산녹지 대로점 토지 1182평 감정가 715,000,000 최저가 501,000,000	▶ 남구 서동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79평 건물 115평 감정가 522,000,000 최저가 366,000,000
▶ 나주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구 토지 10399평 감정가 2,678,000,000 최저가 2,678,000,000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인근 토지 128평 건물 251평 감정가 885,000,000 최저가 619,000,000
▶ 해남 산이면 대진리 신농마을인근 대로점 토지 6042평 감정가 482,000,000 최저가 337,000,000	▶ 화순 도곡면 천암리 호텔 토지 978평 건물 1295평 감정가 3,787,000,000 최저가 993,000,000
▶ 고흥 풍양면 매곡리 바닷가인근 대로점 학교부지 토지 1006평 감정가 58,000,000	▶ 동구 충장로5가 토지 65평 건물 감정가 436,000,000 최저가 218,000,000

공 장	일 반 물 건
▶ 장성 서삼면 송현리 내연마을인근 계획관리 자연취락지구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665,000,000	▶ 북구 운암동 운암동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 나주 문평면 옥당리 문평산업단지인근 계획관리 토지 1416평 건물484평 감정가 320,000,000 최저가 224,000,000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9층 건물 29평 매매가 63,000,000
	▶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현재 상업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 광산구 비아동 아파트자리 토지 약 2000평 매매가 평당 28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